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07. 06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작 성 과	용유무의개발과
담 당	과장 강영훈, 용유무의계획팀장 우창식, 담당 강진우(032-453-7592)

“인천경제청, 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국제중재 승소”

ICC, 자본금 증자 미 이행 따른 기본협약 해지 적법 판정…2년반 법적공방 종지부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(이하 “인천경제청”)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‘에잇씨티’와 관련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,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.
-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월 (주)에잇씨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제중재재판소(ICC)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(주)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.
- 에잇씨티 사업은 2006년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리며, 총 면적 79.9㎢(약 2,500만평)에 사업비 약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숫자 ‘8’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며,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펜스키(Kempinski)와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 미 확보로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 예고 후 같은 해 8월 1일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되었다.
- 이후 (주)에잇씨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(당초 603억)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하였고, 인천경제청은 이에 적극 대

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국제중재 T/F을 구성하고, 국내 최고의 중재경험을 보유한 대형로펌을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자료 수집 및 증인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다. 또한 지난해 12월 심리기일에는 2박3일간 합숙을 하며 국제중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.

- 국제중재 과정에서 (주)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 완료,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,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하여 1, 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하였다.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△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, △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, △에잇씨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.
- 이번 국제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 성격으로 불복 절차가 없어 확정 판결로 볼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(주)에잇씨티는 청구 금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재 패소로 인하여 경제청의 중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.
-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“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정”이라며 “국제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승소가 드문 경우로 볼 때 판정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”고 밝혔다.
아울러, “앞으로 중재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판정 집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, 후속사업인 용유 오션뷰 등 단위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